

전남 시·군 영화관 30년만에 문 연다

도, 19개 시군에 190억 투입
100석 안팎 작은영화관 설립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하기로

인구 감소, 젊은층 유출 등으로 인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하나 둘 사라졌던 읍내 영화관들이 다시 문을 연다. 전남도가 영화관이 없는 19개 시·군에 오는 2018년까지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하지만 조성 예산의 절반과 운영비를 시·군이 부담하도록 해 '문화 향유'치고는 대가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 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의 절반 정도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는 10일 "오는 2018년까지 국비와 시·군비 190억원을 투입해 영화관이 없는 시·군 내 건물에 100석 안팎의 영화관으로 리모델링해 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1곳당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군은 5억원은 물론 영화관 운영비까지 집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지난해와 올해 고흥, 장흥, 광양, 완도 등 각각 두 곳만 사업을 신청하면서, 매년 4곳씩 조성할 예정이었던 전남도의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 전남도는 작은 영화관 사업이 읍내 오래된 건물을 재생하는 측면도 있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지난해 신청한 고흥과 장흥은 각각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이 받아 착실이어울촌, 국민체육센터를 작은 영화관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지난해 작은 영화관 사업을 신청한 고흥은 지난 1990년대 초까지 읍내에 민간 영



가마솥 더워 시원한 폭포

태풍이 지나간 10일 한 시민이 벤치에 앉아 광주천 두물머리 인공폭포를 바라보며 쉬고 있다. 광주·전남은 주말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인 13일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14일 낮부터 점차 그칠 것이라고 광주지방기상청은 전했다. > 관련기사 7면

태풍이 지나간 10일 한 시민이 벤치에 앉아 광주천 두물머리 인공폭포를 바라보며 쉬고 있다. 광주·전남은 주말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인 13일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14일 낮부터 점차 그칠 것이라고 광주지방기상청은 전했다. > 관련기사 7면

태풍이 지나간 10일 한 시민이 벤치에 앉아 광주천 두물머리 인공폭포를 바라보며 쉬고 있다. 광주·전남은 주말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인 13일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14일 낮부터 점차 그칠 것이라고 광주지방기상청은 전했다. > 관련기사 7면

화관 2곳이 운영됐지만, 주고객층인 젊은 층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폐관됐다. 장흥, 완도, 광양 역시 1980년대 후반 사라졌으며, 광양은 문예회관이나 백운아트홀에서 간간히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 이들 시·군은 작은 영화관이 지역 내 젊은층 이탈 방지와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등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해 사업을 신청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가끔 영화를 상영해 일정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

극장은 물론, 영화 DVD조차 상영할 문화시설이 없는 절대소외 지역도 7곳에 이른다. 전남은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연간 영화 관람횟수가 1.72편으로 전국 평균 3.84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도는 다음달까지 2015년도 2차 사업대상지를 공모하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산간오지지역 '찾아가는 영화관' 및 '인터넷 기반 영상콘텐츠 제공'사업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시·군은 전문성을 감안해 영화배급사나 사회적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방침이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영화관이 있는 곳은 목포와 여수, 순천 등 3곳으로 모두 7개 영화관에서 49개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구례와 나주는 주말에만 운영되는 영화관이 있다.

극장은 물론, 영화 DVD조차 상영할 문화시설이 없는 절대소외 지역도 7곳에 이른다. 전남은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연간 영화 관람횟수가 1.72편으로 전국 평균 3.84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도는 다음달까지 2015년도 2차 사업대상지를 공모하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산간오지지역 '찾아가는 영화관' 및 '인터넷 기반 영상콘텐츠 제공'사업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테마칼럼' 새로운 필진을 만나세요

광주일보가 매주 금요일 23면에 연재하는 '테마칼럼'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인문학과 사회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새 필진들은 4가지 테마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

입니다. 김호기의 '말하자면', 박경철의 '오디세이아', 서윤영의 '집과 사람', 안경환의 '법과 문화' 칼럼에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바랍니다.



김호기 교수, 박경철 대표, 서윤영 칼럼니스트, 안경환 교수

-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빌레펠트대학교대학원 사회학 박사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 ▲한국정치사회학회 부회장
 - ▲저서 '시대정신과 지식인' '지식의 최전선' '책으로 읽는 21세기' 등 다수
- ◇박경철 지식나눔 네트워크 대표
 - ▲외과전문의 ▲희망제작소 및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이사 ▲경제평론가
 - ▲저서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1, 2' '시골의사의 부자 경제학' '문명의 배꼽, 그리스:인간의 탁월함, 그 근원을 찾아서' 등 다수
- ◇서윤영 건축칼럼니스트
 -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홍익대학교·인하대학교 출강
 - ▲저서 '건축, 권력과 욕망을 말한다' '사람을 닮은 집 세상을 담은 집' '꿈의 집 현실의 집' 등 다수
-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 ▲저서 '법과 문화 사이'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법, 세익스피어를 읽다' '죄우지간 인권이다' 등 다수

光州日報社

7·30 재보선 후보자등록 오늘 마감... '열전 20일' 돌입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20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4면>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광주 광산을, 나주·화순, 순천·곡성,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광주·전남 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대부분의 입후보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갔다.

순천·곡성의 경우 새누리당 이철현 후보와 서갑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이성수 통합진보당 후보, 구희승 무소속 후보 4명 모두가 이날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순천·곡성 선거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서 후보의 출마에 따라 '왕의 남자'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다.

나주·화순 선거구에는 새누리당 김종우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후보, 무

소속 강백수 후보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3파전'으로 선거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새누리당 이철호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기호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광주 광산에는 새누리당 송환기 후보와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한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과 정의당 문정은 후보는 11일 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결국... 문화전당 콘텐츠 못 채우고 개관하나

광주지역 문화예술계의 우려대로 문화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공연·전시, 운영프로그램)를 전부 채워넣지 않고 개관하는 방침을 기정사실화 해 개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주 문화예술계는 "문화부가 수년 동안 준비작업을 해놓고도 개관을 목전에 두고 콘텐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내년 성공적인 문화전당 개관을 위해서는 콘텐츠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의 핵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과 관련해 "준비된 장소가 넓어서 한꺼번에 콘텐츠를 채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최근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밝힌 개관 일정과 같은 내용으로, 선(先) 개관, 후(後) 콘텐츠 보강이라는 문화부의 방침을 내비

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추진단은 지난 달 24일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가 참석한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업무공유' 간담회에서 문건을 통해 내년 7월 사전 개관을 거쳐 9월 문화전당을 전면개관 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러나 "개관시 모든 콘텐츠가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지속적 관점에서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

정성근 문화체육관광 후보 청문회 '先개관 後보강' 방침 다시 확인

으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문화관련 단체는 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개관을 촉구해 온 지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사무처장은 "콘텐츠를 채우지 않고 문화전당을 개관하는 것은 상품 없이 백화점을 여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문화전당 콘텐츠 확충을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울

한울

울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울 울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세로위진 한울 울려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끗하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에요.

*100% 갈색 솔잎 추출물 함유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1. 갈색 솔잎 추출물 함유	100%	2.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99%
3. 피부가 나빠져 한결 아연 보이는 것 같다	99%	4. 피부가 탄력 있게 느껴진다	99%
5. 피부가 자글자글한 느낌이 사라진다	98%	*100% 갈색 솔잎 추출물 함유	